



박지성이 14일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홈 경기에서 아스널 수비수 월리엄 갈리스, 골키퍼 앤스 레만과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지성 선발 출전...맨유 선두 유지

시즌 10번째 선발 출전한 박지성(27)은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승리 보증수표'였다.

박지성은 14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아스널과 홈 경기에 완주 공격수로 선발 출전, 오른쪽 측면과 중앙까지 폭넓게 활약하면서 팀 공격에 힘을 보탰지만 공격포인트를 거두지 못한 채 후반 10분 카를로스 테베스와 교체돼 나갔다.

영국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로부터 '열심히 뛰었다'(worked hard)는 평가와 함께 평점 7점을 받았다.

하지만 맨유는 후반 8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동점 페널티킥 골과 후반 22분 오언 하그리브스의 기막힌 역전 프리킥 골을 앞세워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에서 4강에도 올라있는 맨유는 정규리그 25승 5무4패(승점 80)로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더블'(정규리그·챔피언스리그 2관왕)에 도전하는 박지성(27, 맨유)의 우승메달 기대로 흥미를 더하고 있다.

'열심히 뛰었다'... 평점 7점

아스널에 2-1 짜릿한 역전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에서 모두 팀 승리를 불러 '100% 승리자'임을 입증했고 이날까지 정규리그 9경기 출장하면서 10경기 이상 뛰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우승 메달 자격에도 한 경기 차로 다가섰다.

맨유는 정규리그 우승에 실낱같은 희망을 살리려는 아스널의 거센 공세에 밀려 힘겨운 경기를 예고했다.

전반 5분 아스널의 세스크 파브레가스에게 실점 위기를 내준 맨유는 전반 15분 박지성이 골 지역 정면에서 헤딩골을 노렸지만 머리를 스치고 지나면서 첫 번째 골 기회를 놓쳤다.

맨유는 전반 19분 웨인 루니가 단독 찬스 뒤 슛을 날렸지만 왼쪽 골대를 스치듯 비켜나갔고, 전반 24분에는 루니와 호흡을 맞춘

박지성이 한 발 앞서 거둬내면서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 3분 토고 출신 스트라이커 아데바요르에게 선제골을 내준 맨유는 3분 뒤 아스널의 페널티 지역에서 수비수 월리엄 갈리스의 핸드볼 반칙을 얻어내면서 동점 기회를 맞았다.

마이클 캐리가 골 지역에 있던 박지성에게 패스하려던 순간 불이 갈리스의 원손에 맞은 것. 키카로 나선 호날두는 침착하게 동점골을 터뜨려 정규리그 28호 골로 득점왕을 굳혔다.

맨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후반 10분 박지성을 빼고 카를로스 테베스를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고, 후반 22분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하그리브스가 멋진 오른발 감아차기로 왼쪽 골 그물 구석을 흔들면서 역전 쇼를 펼쳤다.

한편 앞서 열린 경기에서 리버풀은 블랙 번을 흙으로 불러들여 후반 15분 터진 스티븐 제라드의 선제골과 후반 37분 프리미어리그 득점랭킹 2위(22골)인 페르난도 토레스의 결승골,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안드리 보로닌의 쇄기골을 합쳐 3-1 대승을 거뒀다.

박지성은 이번 시즌 선발로 나선 10경기

에서 모두 팀 승리를 불러 '100% 승리자'임을 입증했고 이날까지 정규리그 9경기 출장하면서 10경기 이상 뛰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우승 메달 자격에도 한 경기 차로 다가섰다.

맨유는 정규리그 우승에 실낱같은 희망을 살리려는 아스널의 거센 공세에 밀려 힘겨운 경기를 예고했다.

전반 5분 아스널의 세스크 파브레가스에게 실점 위기를 내준 맨유는 전반 15분 박지성이 골 지역 정면에서 헤딩골을 노렸지만 머리를 스치고 지나면서 첫 번째 골 기회를 놓쳤다.

맨유는 전반 19분 웨인 루니가 단독 찬스 뒤 슛을 날렸지만 왼쪽 골대를 스치듯 비켜나갔고, 전반 24분에는 루니와 호흡을 맞춘

박지성이 페널티 지역에서 볼을 잡으려 했지

■ 英 프로축구 점입가경

맨유 VS 첼시

'2관왕' 쟁탈전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첼시간 '더블'(정규리그·챔피언스리그 2관왕) 경쟁과 박지성(27, 맨유)의 우승메달 기대로 흥미를 더하고 있다.

맨유와 첼시는 정규리그 1, 2위로 우승을 다투고 있고 나란히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 더블 달성을 키워가고 있다.

◇ 맨유-첼시 '더블 전쟁' 승자는? 정규리그 2연패를 노리는 맨유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첼시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맨유는 시즌 25승 5무4패(승점 80)로 첼시(승점 74)와 간격을 승점 6차로 벌렸다. 첼시가 한 경기 더 남아 있음에도 맨유의 통산

정규리그·챔스리그

동시 석권 총력 질주

열일곱번째 우승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 '100% 승리자' 박지성, 우승 메달까지?

맨유가 2연패를 달성한다면 박지성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우승 메달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박지성은 아스널전까지 정규리그 9경기에 출장해 우승 메달 획득자격 요건인 10경기에 바짝 다가섰다. 남은 정규리그 4경기 중 한 경기에도 나서면 메달을 목에 건다.

최근 활약은 박지성의 메달 기대를 부풀린다.

특히 박지성이 이번 시즌 선발 출격한 10경기에서 팀이 전승을 거두며 '박지성 선발 출전 = 맨유 승리'라는 공식이 생겼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스파드가 펼어진 노장 라이언 깁스보다 박지성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왼쪽 측면 공격수까지 적극적으로 기다려 그라운드를 누비는 박지성의 활발한 움직임이 맨유 승리에 밀가루를 되고 있어서다.

샤라포바 클레이 코트 첫 우승

시즌 3승...통산 19승

WTA 바슈&롭 챔피언십

마리아 샤라포바(21·러시아·사진)가 시즌 3승째를 클레이 코트에서 이뤄냈다.

세계 5위로 랭크를 받은 샤라포바는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아델리아 아일랜드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바슈&롭 챔피언십(총상금 60만달러) 단식 결승에서 도미니카 시볼코바(19·슬로바키아)를 2-0(7-6<7> 6-3)으로 꺾고 통산 19승째를 거뒀다.

그동안 하드 코트나 잔디 코트에서만 승수를 챙겼던 샤라포바는 클레이 코트 첫 우승을 따내며 우승 상금 9만 5천 500달러도 획득했다.

3승 이프를 맨 먼저 끊은 샤라포바는 올 시즌 22승째로 승률 고공 비행을 이어갔다. 샤라포바는 15일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칼스턴에서 열리는 WTA 투어 페밀리서클컵(총상금 134만달러)에 2번 시드를 받고 출전해 시즌 4승과 클레이코트 2승째를 노린다.



세계 34위의 시볼코바는 처음 진출한 투어 결승에서 샤라포바와 첫 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현판 남자테니스 국가대항전인 테이비스컵 8강에서는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스페인과 미국이 각각 승리해 4강에서 맞붙게 됐다. 준결승은 9월 20일부터 3일간 열린다.



전국궁도종별선수권 담양 총무정서 개막

제 41회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및 제 107회 전국남녀궁도승단대회(축

제 107회 전국남녀궁도승단대회(축)

제 41회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및 제 107회 전국남녀궁도승단대회(축)